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 TRADE FOCUS

2019년 21호

ISSN 2093-3118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iit.kita.net](http://iit.kita.net)

## 한국과 주요국의 對中 수출 공급경로 비교 분석

—최종 수요에 의한 무역 유발효과를 중심으로—

2019년 5월

동향분석실 강내영 수석연구원  
강성은 연구원

“융복합 시대, 미래무역의 글로벌 리더 한국무역협회”

— KITA, Smart BRIDGE to the Future Trade —



# CONTENTS

[요 약]	i
I. 최근 중국의 대내외 환경변화(연구배경)	01
II. 주요국의 對中 수출의존도	04
III. 한국 및 주요국의 對中 수출 공급경로	06
IV. 결론 및 시사점	14

☐ 보고서 내용 문의처

동향분석실 강내영 수석연구원 (02-6000-5259, nykang87@kita.net)



최근 중국의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對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국가들의 수출 부진이 우려되고 있다. 대내적으로 중국은 내수기반 경제구조로의 전환 및 중간재 자급률 제고를 통해 가공무역 및 중간재 수입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양국의 상호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교역환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전략 및 미·중간 통상압력 심화로 인해 중국의 중간재 수요는 향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효과는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본 보고서는 중국의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한 주요국의 對中 수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세계산업연관표를 활용해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對中 수출 공급경로를 비교 및 분석했다. 중국의 주요 수입국인 한국, 일본, 대만, 독일, 미국의 對中 수출을 제조업종별 및 최종 귀착지별로 분해해 봄으로써 각국의 對中 수출이 궁극적으로 어느 나라의 최종수요에 의해 창출되었는지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중국을 생산거점으로 한 수출 비중을 점차 축소해오며 최근 중국의 내수기반 경제 및 글로벌 분업구조의 변화에 편승 중이다. 2000년 이후 對中 중간재 수출비중이 가장 높았던 시기인 2007년 (80.9%) 대비 2014년 들어 중간재 비중이 68.7%로 12.1%p 하락했다. 특히 중국을 경유하여 미국 등 다른 나라로 최종 귀착되는 우회 수출 비중이 동 기간 13.7%p 하락했다. 반면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수출 비중이 상승했고 특히 최종재 수출 비중의 상승이 두드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중국을 통한 우회 수출 비중이 5개국 중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반면 중국 내수시장으로 들어가는 최종재 수출 비중은 독일, 미국, 일본 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중 무역분쟁이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로 인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아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중국 진출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신남방 및 신북방 경제권으로의 진출확대를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상품 및 서비스 부문의 최종재 수출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동시에 중국 내수 시장으로 들어가는 중간재의 고기술 및 고부가가치화에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본 문





# I. 최근 중국의 대내외 환경변화(연구배경)

## ■ 중국은 중진국 함정<sup>1)</sup>과 선진국 추격 사이의 변곡점에 진입한 상태

- 경기 둔화세에도 중국의 1인당 명목 GDP는 올해 1만 달러를, 2024년에는 1만 5000달러를 넘기며 고소득 국가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됨

\* 중국 1인당 명목 GDP 추이(달러) :

('05) 1,766 → ('10) 4,524 → ('15) 8,167 → ('17) 8,677 → ('19) 10,153 → ('24) 15,102

## ■ 이에 중국은 내수확대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정책을 적극 추진 중

- 임금상승, 고령화 등에 따른 저축률 하락이 소비확대에 일부 기여한 바 있지만 여전히 GDP 대비 가계최종소비부문 비중은 낮은 상태로 빠르게 상승할 여지를 가지고 있음

\* 중국 제조업 평균임금(위안) : ('05) 15,934 → ('10) 30,916 → ('15) 55,324 → ('17) 64,452

2017년 기준 중국 전 산업 평균임금 증가율 : 10.0%

\*\* 중국 총 저축률(%) : ('06) 48.1 → ('10) 51.5 → ('15) 48.2 → ('17) 46.4

\*\*\* 중국 GDP 대비 가계최종소비 비중(%) : ('05) 40.2 → ('10) 35.4 → ('15) 38.6 → ('17) 38.4

\*\*\*\* 중국 소매판매 성장률(% , 전년동기비) : ('18.11) 8.1 → ('18.12) 8.2 → ('19.3) 8.7

- GDP 대비 가계최종소비 비중은 한국·일본의 비슷한 소득 수준 시기와 비교했을 때 10%p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음

\* 구매력기준 1인당 GDP 15,000달러 수준에서 한중일 GDP 대비 가계최종소비 비중(%) :  
(일본, '87) 52.2 > (한국, '99) 52.0 > (중국, '16) 39.5

- 지방채 조기발행\*, 증치세율 추가 인하\*\*, 중소기업 특별 우대\*\*\* 등 中 경기 부양정책은 성장률 제고를 위한 내수기반 확충에 중점

\* 지방채 중 1조 3,900억 위안 조기 발행

\*\* 제조업(16% → 13%), 운수업·건설업(10% → 9%) 등에 대한 증치세율 추가 인하

\*\*\* 중소기업 부가세 면세한도 상향, 소득세 우대 등

\*\*\*\* 기타 : 기업의 양로보험 납부 요율 최대 16%까지 인하/ 상공업계 평균 전력 사용비용 10% 인하/ 중소기업 인터넷 이용료 및 모바일 요금 각 15%, 20% 인하

1) 개발도상국이 중간소득국가(Middle income country) 단계에서 성장력을 상실하여 고소득국가(High income country)에 이르지 못하고 중진국에 머무르거나 다시 저소득국가로 후퇴되는 현상

## ■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중국 내 제조업 비중이 하락하면서 소비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음

- 중국의 GDP 대비 3차 산업 비중은 2012년 처음 2차 산업 비중을 넘어선 뒤 최근에는 10%p 넘는 격차를 보임

- 취업자 수도 2차 산업은 대체로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3차 산업의 취업자 수는 빠르게 증가함

- \* 중국 GDP 대비 2차 산업 비중 (%) : ('05) 47.0 → ('10) 46.5 → ('12) 45.4 → ('17) 40.7
- \*\* 중국 GDP 대비 3차 산업 비중 (%) : ('05) 41.3 → ('10) 44.2 → ('12) 45.5 → ('17) 51.9
- \*\*\* 중국 2차 산업 취업자 수 (만 명) : ('05) 17,766 → ('10) 21,842 → ('12) 23,241 → ('17) 21,842
- \*\*\*\* 중국 3차 산업 취업자 수 (만 명) : ('05) 23,439 → ('10) 26,332 → ('12) 27,690 → ('17) 34,872

## ■ 이와 같이 중국시장이 질적인 변환기에 접어들어 따라 대외적으로 중국의 상품무역 증가세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분업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이 내수중심 경제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수출입 증가세가 점차 둔화

- \* 중국 수출 증가율 추이 (%) : ('10) 31.3 → ('13) 7.8 → ('16) -7.7 → ('18) 10.2
- \*\* 중국 수입 증가율 추이 (%) : ('10) 38.8 → ('13) 7.2 → ('16) -5.5 → ('18) 15.8

- 중국이 과거에는 중간재를 수입해 조립·가공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나 최근에는 중간재 자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아시아 역내에서 가치사슬 상위 단계로 도약하는 등 세계 생산공장으로서의 역할이 약화됨

- \* 중국 가공무역 비중 (%) : ('05) 48.6 → ('10) 39.0 → ('15) 31.5 → ('18) 27.3
- \*\* 중국 가공무역의 중간재 자급률 (%) : ('05) 34.2 → ('10) 43.6 → ('15) 44.0 → ('18) 41.0
- \*\*\* 중국 전체 수입 중 중간재 비중 (%) : ('05) 59.3 → ('10) 51.2 → ('15) 53.4 → ('18) 52.5

## ■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글로벌 교역 환경에 대한 우려가 극대화됨에 따라 중국에 생산거점을 둔 제조업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 타격이 확대될 우려

- 한국의 경우, 對中 수출의 대부분이 중간재이며 이 중간재가 중국의 가공수출에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관세 공격에 한국도 연쇄 타격이 불가피

- 트럼프 대통령의 對중국 관세가 초기에는 '중국제조 2025'를 겨냥한 제조업 및 하이테크 품목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 냉장고, TV, PC 등 생활필수품까지 관세가 확대될 전망

\*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5.9~10일, 워싱턴)이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됨에 따라 무역분쟁은 격화되는 추세

■ (美→中) 5.10일 00:01(미 동부표준시)를 기점으로 對中수입품 \$2,000억에 대한 관세율을 종전 10%에서 25%로 인상

■ (中→美) 이에 대한 보복으로 6.1일부터 對美 수입품 \$600억에 대한 관세를 5~10%에서 5~25%로 인상

■ (美→中) 5.13일 미국무역대표부는 추가 관세부와 대상이 될 \$3,000억 잠정품목 공개, 이르면 25%의 추가 관세가 6.24일부터 부과될 가능성

- 제조업 관련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하는 등 양국 간 무역분쟁으로 인한 중국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의 수출에 타격이 예상됨

- 중국의 2월 제조업 PMI 역시 위축국면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고정투자 중 제조업투자가 여타 부문과 달리 악화됐는데, 이는 무역 분쟁에 따른 기업 이익 악화로 투자 여력이 약해진 것으로 보임

\* 中 산업생산지수 : ('18.10) 110.2 → (11) 109.6 → (12) 109.1 → ('19.1) 108.6

\*\* 中 제조업 PMI : ('18.11) 50.2 → (12) 49.7 → ('19.1) 48.3 → (2) 49.9 → (3) 50.8

\*\*\* 中 제조업 부문 고정투자 성장률(%) : ('18.12) 9.5 → ('19.1) 5.9 → (2) 5.9 → (3) 4.6

- 한국의 전체 중간재 수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내외로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그 피해규모가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의 전체 중간재 수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

('00) 15.2 → ('05) 31.3 → ('10) 30.3 → ('15) 30.5 → ('17) 29.5 → ('18) 29.8

\*\* 한국의 對중국 수출 증가율(% , 전년동기비) :

('18.10월) 17.4 → (11) -3.2 → (12) -14.0 → ('19.1월) -19.0 → (2) -17.3 → (3) -15.6

- 본 보고서는 세계산업연관표 (WIOT)<sup>2)</sup>를 활용해 한국과 주요국의 對中 수출 공급경로를 비교해 봄으로써 중국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주요국의 對中 수출 영향을 살펴봄

- 중국의 주요 수입국인 한국, 일본, 대만, 독일의 對中 수출을 제조 업종별 및 최종 귀착지별로 분해해 봄으로써 중국으로의 수출이 궁극적으로 어느 나라의 최종 수요에 의해 창출되었는지 비교해 봄

\* 2018년 중국 국별 수입 비중(% , 수입순위 상위 5개국) :

(한국) 9.6, (일본) 8.4, (대만) 8.3, (미국) 7.3, (독일) 5.0

- 나아가 주요 18대 제조업을 대상으로 중국을 경유하여 타 국가로 최종 귀착되는 우회 수출이 어떤 산업에 의해 유발되는지 살펴봄

2) 세계 산업연관표(WIOT, World Input Output Table)를 활용한 분석은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한 생산의 경제적 영향 파악을 주된 목적으로 함

## Ⅱ. 주요국의 對中 수출 의존도

■ 최근 중국의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한 영향은 중국의 주요 수입국 중 對中 수출 비중 및 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파급될 우려

- 中 내수기반의 경기부양책과 최근 재점화된 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의 중간재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중국 현지에서 추가적인 가공을 위한 수출을 하는 한국, 대만, 일본 등을 중심으로 對中 수출 타격이 우려

– 중국의 수입 상위국 중에서 對中 중간재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대만(78.5%)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며, 이어 한국(68.7%), 일본(65.1%), 미국(59.3%), 독일(46.6%) 등을 중심으로 그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 수입순위 상위 5개국의 對中 중간재 수출 비중(% , MOD 2014) :  
78.5(대만) > 68.7(한국) > 65.1(일본) > 59.3(미국) > 46.6(독일)

### <2018년 주요국<sup>1)</sup>의 對中 수출 비중 및 의존도>

(단위 : 비중 %)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
중국 對국별 수입 <sup>2)</sup>	9.6	8.4	8.3	7.3	5.0
국별 對중국 수출 <sup>3)</sup>	26.8	19.5	28.8	7.2	7.1
對中 수출 의존도 <sup>4)</sup>	10.0	2.9	16.4	0.6	2.8

주 : 1. 2018년 중국 수입순위 상위 5개국 대상

2. 중국 對세계 수입 대비 비중

3. 국별 對세계 수출 대비 비중

4. 국별 명목GDP 대비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IMF

-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중국 수입수요 감소에 따른 주요국의 對中 수출 감소가 예상됨

#### <중국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 對中 수출 영향>



자료 : 저자 작성

### Ⅲ. 한국 및 주요국의 對中 수출 공급경로

■ 국가 간 무역이 궁극적으로 어느 나라의 수요에 의해 창출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국의 최종 수요에 의한 무역 유발효과를 분석

- 세계산업연관표<sup>3)</sup>를 활용해 주요국의 對중국 수출의 최종 귀착지를 분해하여 중국의 내수기반 성장전략 및 미국의 對중국 통상 압력 심화에 따른 국가별 對中 수출 영향을 파악

- 對中 최종재 수출은 최종수요국인 중국의 소비나 투자를 위한 수출임
- 반면 對中 중간재 수출은 중국 현지에서 추가적인 가공을 위한 수출로, 궁극적으로는 최종재의 수요국에 의해 발생

<국별 對중국 수출 공급경로>



자료 : 저자 작성

#### [분석모형 : 수출의 최종 귀착지 모형]

- 개념 :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행렬을 이용하여 중간재의 가공단계를 추적 후 최종수요처를 기준으로 분해

- 모형 : 
$$e_r^{kc} = A^{kc} \left[ (If_r)_c + (Af_r)_c + (A^2 f_r)_c + \dots \right]$$

단,  $e_r^{kc}$  : r국가의 최종수요로 인한 k국가의 c국가로의 수출

$A^{kc}$  : c국가의 k국가 중간재 투입계수 행렬

$f_r$  : r국가의 최종수요

$A$  : 투입계수 행렬

$L$  : 생산유발계수 행렬

$(\cdot)_c$  : c국가에서의 생산유발액

3) 세계산업연관표는 국가 간 교역을 산업연관표의 체계에 맞추어 작성한 통계표

## 1. 한국의 對중국 수출 공급경로

■ 한국의 對中 수출(2014년)은 최종재 31.3%, 중간재 68.7%로 구성

- 최종 귀착지별로 중간재 수출을 분해해 보면 중국 내수가 43.8%, 미국 5.0%, EU 4.3%, 일본 2.0%, 대만 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는 한국의 對中 중간재 수출은 가공수출용(24.9%, 對中 전체 수출 대비) 보다 중국내수용(43.8%)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함을 의미

■ 對中 수출 중 중국으로 최종 귀착되는 비중은 상승한 반면 중국을 경유하여 다른 나라로 최종 귀착되는 우회 수출 비중은 하락

- 2007년<sup>4)</sup>과 비교해 보면 중국을 최종 귀착지로 하는 수출(최종재 + 내수용 중간재) 비중은 13.7%p (61.4% → 75.1%) 높아짐
- 중국 내 최종 귀착되는 최종재(19.1% → 31.3%, 12.1%p 상승)와 내수용 중간재 비중(42.3% → 43.8%, 1.5%p 상승)이 모두 상승함에 기인
- 반면 미국(3.9%p ↓), EU(3.6%p ↓), 일본(1.0%p ↓), 한국(0.4%p ↓), 대만(0.1%p ↓) 등 중국 이외의 타 국가로 최종 귀착되는 우회 수출 비중은(38.6% → 24.9%, 13.7%p ↓) 하락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의 최종 귀착지 분해 (2014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비중%)

	2007년		2014년	
	수출금액	비중	수출금액	비중
전체	83,159	(100.0)	168,773	(100.0)
최종재	15,901	( 19.1)	52,760	( 31.3)
중간재	67,258	( 80.9)	116,014	( 68.7)
■ 중국 내수	35,174	( 42.3)	73,969	( 43.8)
■ 해외 귀착 (우회수출)	32,084	( 38.6)	42,045	( 24.9)
- 미국	7,426	( 8.9)	8,440	( 5.0)
- EU	6,652	( 8.0)	7,340	( 4.3)
- 일본	2,525	( 3.0)	3,436	( 2.0)
- 한국	983	( 1.2)	1,303	( 0.8)
- 대만	352	( 0.4)	479	( 0.3)

주 : 저자 계산

자료 : WIOD 2014

4) 2000년 이후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시기

■ 제조 업종별로 보면 전체 對中 수출 중 중국의 최종수요를 위한 수출은 기계장비, 운송기기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최종수요를 위한 수출은 전자기기, 화학 등을 중심으로 크게 나뉨

● 對中 기계장비 수출 중에서는 90.6%(101억 달러)가, 운송기기 부문에서는 89.2%(50억 달러)가 중국 최종수요를 위한 수출임

- 기초금속, 화학, 고무제품, 석유 등 부문의 중간재는 중국 내수용 비중이 60%를 상회하며 전 산업 평균 수준(24.9%)을 크게 웃돌

\* 주요 제조업종별 對中 수출 중 중국 최종수요를 위한 비중(%) :

- (내수용 중간재, A) : 76.2(기초금속) > 70.6(화학) > 64.3(고무제품) > 61.6(석유)
- (최종재, B) : 63.5(기계장비) > 38.5(전자기기) > 36.5(전기장비) > 35.5(운송기기)
- (전체, A+B) : 90.6(기계장비) > 89.2(운송기기) > 82.1(전자기기) > 80.1(석탄및석유)

● 반면 전자기기 부문에서 6.3%(48억 달러)가 미국 최종수요를 위한 수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데 이어 화학 부문에서는 5.3%(13억 달러) 상당의 중국으로 수출된 중간재가 미국으로 최종 귀착됨

<한국의 산업별 對中 중간재 수출의 귀착지별 분해(2014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비중%)

산업명	최종재		중간재		중국 내수		우회 수출		미국 귀착		기타국 귀착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자기기	29,002	(38.5)	46,307	(61.5)	23,748	(31.5)	22,559	(30.0)	4,771	(6.3)	17,789	(23.6)
화학	401	(1.7)	23,793	(98.3)	17,086	(70.6)	6,707	(27.7)	1,275	(5.3)	5,431	(22.5)
석탄·석유	1,467	(18.5)	6,459	(81.5)	4,883	(61.6)	1,576	(19.9)	275	(3.5)	1,301	(16.4)
전기장비	3,075	(36.5)	5,344	(63.5)	3,839	(45.6)	1,504	(17.9)	273	(3.2)	1,231	(14.6)
기초금속	52	(1.1)	4,864	(98.9)	3,747	(76.2)	1,117	(22.7)	198	(4.0)	919	(18.7)
기계장비	7,126	(63.5)	4,098	(36.5)	3,044	(27.1)	1,054	(9.4)	186	(1.7)	868	(7.7)
섬유	1,322	(26.7)	3,635	(73.3)	2,268	(45.8)	1,367	(27.6)	266	(5.4)	1,101	(22.2)
운송기기	1,985	(35.5)	3,606	(64.5)	3,002	(53.7)	605	(10.8)	115	(2.1)	490	(8.8)
고무제품	189	(8.9)	1,930	(91.1)	1,363	(64.3)	567	(26.8)	109	(5.1)	458	(21.6)
기타 운송	1,528	(45.2)	1,849	(54.8)	1,384	(41.0)	465	(13.8)	80	(2.4)	385	(11.4)
기타제조	224	(12.4)	1,587	(87.6)	1,208	(66.7)	379	(20.9)	68	(3.8)	311	(17.2)
가공금속	459	(26.5)	1,272	(73.5)	983	(56.8)	289	(16.7)	52	(3.0)	237	(13.7)

주 : 1. 세계산업연관표(WIOT)에서 제공되는 18개의 제조업 중 對세계 중간재 수출실적 10억 달러 이상인 제조업 대상

2. 비중은 업종별 對中 전체(최종재+중간재) 수출 대비

3. 한국의 對中 전체 수출 중 중국 내수용 중간재 비중(43.8%) 이상이면 내수 지향형 산업, 우회 수출 비중(24.9%) 이상이면 우회수출 지향형 산업으로 분류

자료 : WIOD 2014



## 2. 주요국의 對중국 수출 공급경로

■ 중국의 주요 수입 상위국 중 독일의 경우 중국으로의 최종재 수출 비중이 2014년 기준 절반을 상회하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對中 최종재 수출 비중은 중국 수입순위 상위 5개국 중 독일이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미국 40.7%, 일본 34.9%, 한국 31.3%, 대만 21.5% 등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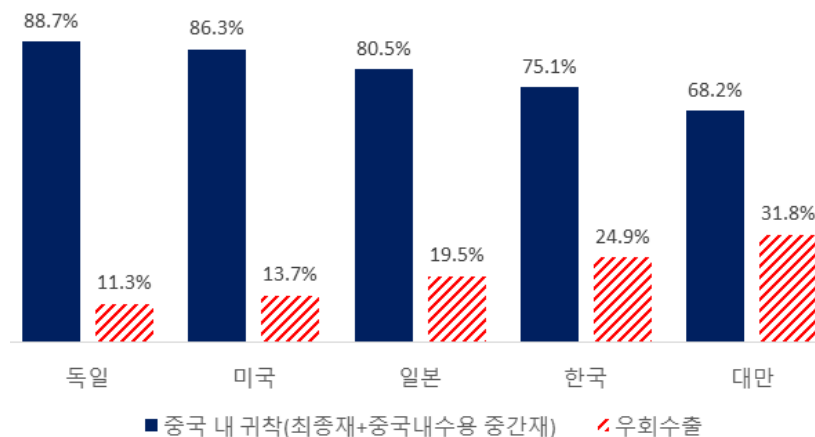
\* 주요국의 對中 최종재 수출 비중(% , WIOD 2014) :

53.4(독일) > 40.7(미국) > 34.9(일본) > 31.3(한국) > 21.5(대만)

■ 對中 수출 중 중국 내 최종 귀착되는 비중은 독일이, 중국에서 가공 후 타 국가로 최종 귀착되는 우회 수출 비중은 대만이 가장 높음

- 중국을 최종 귀착지로 하는 수출(최종재 + 내수용 중간재) 비중은 독일이 88.7%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은 80%를 하회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중국내수용 중간재 수출 비중은 대만이 46.7%로 가장 높으며, 이어 일본 (45.58%), 미국(45.57%), 한국(43.8%), 독일(35.3%) 순임
- 미국 최종 수요에 의해 유발된 對中 수출 비중은 대만이 6.5%로 가장 높으며, 한국은 5.0%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임

<국별 對中 수출 귀착지별 분해>



주 : 저자 계산  
자료 : WIOD 2014

- 단, 한국의 경우 미국 최종 수요에 의한 수출유발률이 2007년(8.9%) 이후 가파르게 하락하다 2014년에는 거의 절반 수준인 5.0% 기록

\* 미국 최종 수요에 의한 수출유발률 (%) :

('00년) 6.1 → ('05) 8.5 → ('07) 8.9 → ('10) 5.2 → ('14) 5.0

#### <주요국의 對中 수출의 최종 귀착지 분해 (2014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일본 對中 수출		대만 對中 수출		독일 對中 수출		미국 對中 수출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전체	129,230	(100.0)	120,019	(100.0)	122,900	(100.0)	112,051	(100.0)
최종재	45,060	( 34.9)	25,761	( 21.5)	65,592	( 53.4)	45,599	( 40.7)
중간재	84,170	( 65.1)	94,258	( 78.5)	57,308	( 46.6)	66,452	( 59.3)
■ 중국 내수	58,907	( 45.6)	56,093	( 46.7)	43,414	( 35.3)	51,067	( 45.6)
■ 해외 귀착	25,264	( 19.5)	38,165	( 31.8)	13,894	( 11.3)	15,385	( 13.7)
- 미국	4,894	( 3.8)	7,822	( 6.5)	2,496	( 2.0)	2,786	( 2.5)
- EU	4,325	( 3.3)	6,733	( 5.6)	2,280	( 1.9)	2,556	( 2.3)
- 일본	1,977	( 1.5)	3,206	( 2.7)	971	( 0.8)	1,175	( 1.0)
- 한국	775	( 0.6)	1,187	( 1.0)	410	( 0.3)	471	( 0.4)
- 대만	294	( 0.2)	432	( 0.4)	160	( 0.1)	172	( 0.2)

주 : 저자 계산

자료 : WIOD 2014

■ 중국의 주요 5대 수입국인 한국, 일본, 대만, 독일, 미국 모두 공통적으로 기계장비 부문에서 중국 최종수요를 위한 수출이, 화학 및 전자기기 부문에서 미국 최종수요를 위한 수출이 큰 비중 차지

- 독일의 경우 운송기기, 기계장비, 전자기기, 전기장비, 화학 등을 중심으로 중국 최종수요를 위한 수출이 크게 나타남

<중국 최종수요를 위한 對中 수출 상위 5대 제조업 (2014년)>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중국의 상위 5대 수입국											
	일본			대만			독일			미국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운송기기	13,187	(91.9)	기계장비	7,068	(93.7)	운송기기	27,600	(94.4)	운송기기	8,709	(98.3)
2	기계장비	14,935	(90.6)	전기장비	4,660	(93.2)	기계장비	26,290	(92.3)	기타운송	11,649	(98.0)
3	전기장비	12,923	(83.1)	화학	13,184	(72.0)	전자기기	6,141	(84.4)	기계장비	8,776	(90.4)
4	전자기기	23,879	(72.4)	기초금속	3,564	(77.2)	전기장비	9,347	(83.6)	전자기기	7,000	(80.9)
5	화학	9,636	(72.8)	전자기기	40,431	(93.7)	화학	3,523	(74.0)	화학	6,872	(73.6)

- 주 : 1. 2018년 기준 중국의 수입순위 상위 5대국 대상  
 2. 세계산업연관표(WIOT)에서 제공되는 18개의 제조업 대상  
 3. 비중은 중국 최종수요를 위한 업종별 對中 수출(최종재+중간재) 기준  
 4. 순위는 비중, 금액 순으로 종합 고려 후 집계

자료 : WIOD 2014

- 대만의 경우 전자기기, 화학, 섬유 등을 중심으로 미국 최종수요를 위해 중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 최종수요를 위한 對中 수출 상위 5대 제조업(2014년)>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중국의 상위 5대 수입국											
	한국			일본			대만			독일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전자기기	4,771	(6.3)	전자기기	1,915	(5.8)	전자기기	5,743	(8.5)	화학	235	(4.9)
2	화학	1,275	(5.3)	화학	684	(5.2)	화학	973	(5.3)	전자기기	239	(3.3)
3	섬유	266	(5.4)	기초금속	455	(4.0)	섬유	233	(7.4)	전기장비	328	(2.9)
4	석유	275	(3.5)	전기장비	478	(3.1)	고무제품	115	(5.1)	기계장비	388	(1.4)
5	전기장비	273	(3.2)	기계장비	277	(1.7)	기초금속	186	(4.0)	운송기기	310	(1.1)

- 주 : 1. 2018년 기준 중국의 수입순위 상위 5대국 대상  
 2. 세계산업연관표(WIOT)에서 제공되는 18개의 제조업 대상  
 3. 비중은 미국 최종수요를 위한 대중 수출(중간재) 기준  
 4. 순위는 비중, 금액 순으로 종합 고려 후 집계

자료 : WIOD 2014

[참고 : 주요국의 對중국 수출 귀착지별 분해]

1. 일본

- 일본의 對中 수출(2014년)은 최종재 34.9%, 중간재 65.1%로 구성
  - 對中 중간재 수출 비중(%) : 45.6(중국내수용) > 19.5(가공수출용)

<일본의 對중국 수출의 최종 귀착지 분해>

(단위 : 백만 달러, %)

	2007년		2014년	
	수출금액	비중	수출금액	비중
전체	103,936	(100.0)	129,230	(100.0)
최종재	26,960	( 25.9)	45,060	( 34.9)
중간재	76,976	( 74.1)	84,170	( 65.1)
■ 중국 내수	43,802	( 42.1)	58,907	( 45.6)
■ 해외 귀착 (우회수출)	33,174	( 31.9)	25,264	( 19.5)
- 미국	7,526	( 7.2)	4,894	( 3.8)
- EU	6,858	( 6.6)	4,325	( 3.3)
- 일본	2,602	( 2.5)	1,977	( 1.5)
- 한국	1,045	( 1.0)	775	( 0.6)
- 대만	381	( 0.4)	294	( 0.2)

주 : 저자 계산

자료 : WIOD 2007, 2014

2. 대만

- 대만의 對中 수출(2014년)은 최종재 21.5%, 중간재 78.5%로 구성
  - 對中 중간재 수출 비중(%) : 46.7(중국내수용) > 31.8(가공수출용)

<대만의 對중국 수출의 최종 귀착지 분해>

(단위 : 백만 달러, %)

	2007년		2014년	
	수출금액	비중	수출금액	비중
전체	88,236	(100.0)	120,019	(100.0)
최종재	15,381	( 17.4)	25,761	( 21.5)
중간재	72,854	( 82.6)	94,258	( 78.5)
■ 중국 내수	35,730	( 40.5)	56,093	( 46.7)
■ 해외 귀착 (우회수출)	37,124	( 42.1)	38,165	( 31.8)
- 미국	8,734	( 9.9)	7,822	( 6.5)
- EU	7,765	( 8.8)	6,733	( 5.6)
- 일본	2,885	( 3.3)	3,206	( 2.7)
- 한국	1,123	( 1.3)	1,187	( 1.0)
- 대만	410	( 0.5)	432	( 0.4)

주 : 저자 계산

자료 : WIOD 2007, 2014

### 3. 독일

- 독일의 對中 수출(2014년)은 최종재 53.4%, 중간재 46.6%로 구성
  - 對中 중간재 수출 비중(%) : 35.3(중국내수용) > 11.3(가공수출용)

#### <독일의 對중국 수출의 최종 귀착지 분해>

(단위 : 백만 달러, %)

	2007년		2014년	
	수출금액	비중	수출금액	비중
전체	59,165	(100.0)	122,900	(100.0)
최종재	28,649	( 48.4)	65,592	( 53.4)
중간재	30,516	( 51.6)	57,308	( 46.6)
■ 중국 내수	19,213	( 32.5)	43,414	( 35.3)
■ 해외 귀착 (우회수출)	11,303	( 19.1)	13,894	( 11.3)
- 미국	2,446	( 4.1)	2,496	( 2.0)
- EU	2,295	( 3.9)	2,280	( 1.9)
- 일본	883	( 1.5)	971	( 0.8)
- 한국	370	( 0.6)	410	( 0.3)
- 대만	134	( 0.2)	160	( 0.1)

주 : 저자 계산

자료 : WIOD 2007, 2014

### 4. 미국

- 미국의 對中 수출(2014년)은 최종재 40.7%, 중간재 59.3%로 구성
  - 對中 중간재 수출 비중(%) : 45.6(중국내수용) > 13.7(가공수출용)

#### <미국의 對중국 수출의 최종 귀착지 분해>

(단위 : 백만 달러, %)

	2007년		2014년	
	수출금액	비중	수출금액	비중
전체	53,927	(100.0)	112,051	(100.0)
최종재	17,763	( 32.9)	45,599	( 40.7)
중간재	36,164	( 67.1)	66,452	( 59.3)
■ 중국 내수	22,029	( 40.8)	51,067	( 45.6)
■ 해외 귀착 (우회수출)	14,136	( 26.2)	15,385	( 13.7)
- 미국	3,111	( 5.8)	2,786	( 2.5)
- EU	2,876	( 5.3)	2,556	( 2.3)
- 일본	1,194	( 2.2)	1,175	( 1.0)
- 한국	452	( 0.8)	471	( 0.4)
- 대만	150	( 0.3)	172	( 0.2)

주 : 저자 계산

자료 : WIOD 2007, 2014

## IV. 결론 및 시사점

- 우리나라는 중국을 생산거점으로 한 수출 비중을 점차 축소해오며 최근 중국의 내수기반 경제 및 글로벌 분업구조의 변화에 편승 중
  - 2000년 이후 對中 중간재 수출비중이 가장 높았던 시기인 2007년 (80.9%) 대비 2014년 들어 중간재 비중이 68.7%로 12.1%p 하락
    - 특히 중국을 경유하여 미국 등 다른 나라로 최종 귀착되는 우회 수출 비중이 하락
    - 對中 우회 수출 비중 : 38.6%('07) → 24.9%('14), 13.7%p 하락
  - 반면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수출 비중이 상승했고 특히 최종재 수출 비중의 상승이 두드러짐
    - 對中 최종재 수출 비중 : 19.1%('07) → 31.3%('14), 12.1%p 상승
    - 對中 내수용 중간재 수출 비중 : 42.3%('07) → 43.8%('14), 1.5%p 상승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중국을 통한 우회 수출 비중이 5개국 중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반면 중국 내수시장으로 들어가는 최종재 수출 비중은 독일, 미국, 일본 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주요국의 對중국 수출 구조 현황(2014년 기준)>

(단위 : 비중 %)

	한국	일본	대만	독일	미국
對中 최종재 수출	31.3	34.9	21.5	53.4	40.7
對中 중간재 수출	68.7	65.1	78.5	46.6	59.3
■ 중국내수용	43.8	45.6	46.7	35.3	45.6
■ 가공수출용	24.9	19.5	31.8	11.3	13.7
- 미국 귀착분	5.0	3.8	6.5	2.0	2.5

주 : 2018년 기준 중국 수입순위 상위 5개국 기준  
 자료 : 저자 작성

- 이와 더불어 미·중 무역분쟁이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로 인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
- 한국의 對中 수출 중 중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최종 귀착되는 비중이 하락했으나, 여전히 대만(6.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양국 간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중국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져 중국 수입수요 감소에 따른 對中 수출 감소 가능성 확대
-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중국 진출전략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
- 첫째, 신남방 및 신북방 경제권으로의 진출확대를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 모색
- 둘째,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상품 및 서비스 부문의 최종재 수출 확대 노력
- 셋째, 중국 내수시장으로 들어가는 중간재의 고기술 및 고부가가치화에 전력할 필요

## 한국과 주요국의 對中 수출 공급경로 비교 분석

Trade Focus 2019년 21호

발행인 | 김영주

편집인 | 신승관

발행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발행일 | 2019년 5월 24일

인쇄처 |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 1960년 5월 29일

등록번호 | 2-97호